

코나 일렉트릭 vs 볼트 EV… 사전예약 정면대결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왼쪽)과 쉐보레 볼트 EV가 나란히 15일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1회 충전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390km 이상, 볼트 EV는 383km의 주행이 가능한 장거리 전기차다.



사진제공 | 현대차·한국지엠

현대차·쉐보레 전기차 기대주 본격 등장

장거리 전기차 시장 경쟁으로 대중화 물꼬
코나 일렉트릭 390km, 볼트 EV 383km 주행



한 번 주행으로 380~39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장거리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됐다. 경쟁 주인공은 15일 동시 사전계약에 들어간 쉐보레 볼트 EV(383km)와 코나 일렉트릭(390km 이상).

●볼트 EV 5000대 물량 확보, 3가지 트림 운영

기존 전기차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200km 내외인 반면 380km 이상의 효율을 내는 볼트 EV와 코나 일렉트릭은 전기차 대중화 시대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에 먼저 선을 보인 쪽은 볼트 EV다. 지난해 3월 출시한 볼트 EV는 1회 충전으로 383km라는 주행거리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물량 부족으로 지난해 650여대 밖에 팔지 못하며 본격적인 흥행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5000여대의 물량을 확보했고, 트림을 세 가지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LT 4558만원, LT 디럭스 4658만원, 프리미어 4779만원이다. 성능도 출중하다. 리

튠-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204마력의 최대 출력과 36.7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며, 시속 100km까지 7초 이내에 주파한다.

●코나 일렉트릭, 390km 주행, 침탄 사양 돋보여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도 일찌감치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390Km(차체 인증 수치)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다.

고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주행 거리에 차이를 둔 두 모델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1회 충전에 390Km 이상 가능한 항속형 모델(64k

Wh 배터리)과 240Km 이상 주행 가능(39.2kWh 배터리)한 도심형 모델 중 선택 가능하다.

동급 최초로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top&Go 포함) 등의 첨단 반주율주행 기능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코나 대비 전장은 15mm, 전고는 5mm 늘려 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예상 가격은 항속형 모델 4600~4800만원, 도심형 모델 4300~4500만원이다. 예약 판매로 출고한 고객에게는 출고일로부터 2년간 무제한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카드를 선착순(1만 2000명) 지급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2018 게임업계, 올해도 IP 파워 러시 계속된다

블소·메이플스토리 등 PC게임 모바일화
‘리니지’ 형제 넷마블·엔씨, IP 활용 확대
배트맨·슈퍼맨 캐릭터 모바일 게임 등장



지난해 게임업계에 거세게 불었던 지적재산권(IP)의 파워가 올해도 거셀 전망이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2018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인기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장을 장악했던 ‘리니지’ 형제처럼 인기 PC 게임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는 물론이고, 만화,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 IP가 모바일게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IP 활용 게임은 이용자가 캐릭터나 줄거리, 세계관에 친숙하다는 점을 활용해 출시 초기 시장 연착륙이 쉽다. 또한 해외 진출 시에도 인기 IP의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리니지 형제로 IP 기반 모바일게임 시장을 이끈 넷마블게임즈와 엔씨소프트는 올

해도 다른 PC게임 IP 활용한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PC게임 IP인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블소)이다. 엔씨소프트는 후속작적인 모바일 게임 ‘블소2’를 상반기 출시 목표로 제작 중이고, 넷마블게임즈는 ‘블소 모바일’을 연내 선보일 예정이다. 블소 외에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을, 넷마블은 ‘이카루스M’을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인기 PC IP를 다수 보유한 넥슨도 올해 IP 기반 모바일게임을 대거 선보인다. ‘메이플 블리츠’와 ‘마비노기 모바일’이 그 주인공. KOG가 제작하는 ‘엘소드M’은 1분기 중 출시 예정이다. 카카오 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와 공동개발리싱하는 ‘드래곤네스트M’을 상반기 출시하고, KOG가 개발 중인 ‘그랜드체이스’는 1분기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웹젠이 ‘무 오리진’의 후속게임 ‘기적MU: 각성’을 상반기 중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며, 펠어비스가 ‘검은 사막’을 활용해 제작한 ‘검은사막 모바일’도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PC게임의 모바일화 뿐 아니다. 만화와 웹

툰, 웹소설 등을 활용한 모바일게임도 다수 출시 예정이다. 넥슨은 인기 만화 ‘열혈강호’의 액션을 담은 ‘열혈강호M’의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고, 선데이토즈도 인기 애니메이션 ‘위버이 베어스’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을 선보였다.

엑스엘게임즈는 인기 웹소설 ‘달빛조각사’를 소재로 한 송재경 대표의 신작 모바일게임을 올해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이다. 카카오게임즈는 네이버와 손잡고 ‘외모지상주의’ 등 인기 웹툰을 소재로 와이드온라인이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팬들에게 친숙한 DC코믹스 캐릭터도 모바일게임에 등장한다. 네시삼십삼분은 썸 에이지와 워너브라더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개발하는 ‘DC언제나이드’를 선보일 예정. 슈퍼맨·배트맨·원더우먼 등 익숙한 슈퍼히어로와 조커·할리퀸·렉스루터 등 슈퍼 빌런들이 등장해 재미를 준다. 현재 한국, 대만, 일본, 홍콩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7000여 나비들의 봄소식, 에버랜드 ‘미리봄 나비정원’

체험학습 위한 생태정보와 프로그램
매일 1회 나비를 날려볼 기회도 마련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가 다양한 나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실내 자연체험관 ‘미리봄 나비정원’을 오픈한다.

판다월드 실내에 조성한 ‘미리봄 나비정원’에서는 긴꼬리제비나비, 큰줄흰나비, 호랑나비, 꼬리명주나비 등 매일 4종 7000여 마리의 나비들이 꽃밭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2월 중순까지 볼 수 있다. 올해는 겨울방학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정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사육사가 나비의 생태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는 스토리텔링 시간이 매일 1회씩 진행하며, 손님들이 나비를 직접 날려 볼 수도 있다. 또한 나비의 생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대형 교육판에 설명했고,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 나비의 한살이 과정도 돋보기로



에버랜드 판다월드에 오픈한 ‘미리봄 나비정원’
사진제공 | 에버랜드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이외에 나비들이 내리앉는 꽃모자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나비 모양 스티커에 새해 소원을 적는 고개 참여 이벤트도 있다.

에버랜드는 현재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더블랙스핀, 롤링엑스트레인, 랫츠트위스트 같은 인기 야외 놀이기구 대부분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파크 곳곳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워밍존을 마련했다. 김재혁 기자 oldfield@donga.com

2017년 역대 최대 판매기록 볼보코리아 4년 연속 성장세

26.9% 성장…중형 SUV 상승세 견인

볼보자동차코리아가 2017년 총 6604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수입차 전체 시장의 성장률이 3.5%에 머물렀던 상황에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5206대를 판매했던 2016년 보다 26.9%나 성장했다.

볼보자동차는 국내시장에서 2014년 이후 4년 연속 20%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총 120%가 넘는 성장을 기록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볼보코리아의 지난해 판매를 견인한 ‘효자 자동차’는 중형 SUV인 XC60이다. 지난 9월 출시한 2세대 ‘더 뉴 XC60’은 국내에서 1555대가 팔려 전년 대비 70.7%나 성장했다. 90 시리즈도 인기를 얻었다. 세단인 S90, SUV인 XC90, 크로스오버 모델인 크로스 컨트리가 각각 1377대, 1066대, 299대 판매됐으며, 전체 판매량 중 41.5%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원성열 기자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언 문학박사(모스크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압촌성,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5일

코스피지수	2503.73	▲	+7.31
코스닥지수	891.61	▲	+18.56
日 닛케이 지수	2만3714.88	▲	+61.60
中 상하이 종합	3410.49	▼	-18.45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22	▲	+0.05
환율 (원·달러)	1064.00	▼	-1.0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931.47	▲	+390.08

오늘의 얼굴

조현준 회장, 17일 검찰 배임 피의자 조사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배임 의혹 등을 받는 조현준(사진) 효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조사 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측근 홍모씨의 유명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여 넣어 챙긴 100여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 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와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가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수년간 수신탁을 보내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함께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월 17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비즈 TALK TALK

●“어느 누구도 가치 보장 못해, 가상화폐 거래는 자기 책임”(경기중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15일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중증하지만 투기는 강력히 통제하겠다는면서 투자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조)

●“육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일 해야”(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비정상적 과열로 사회안전 저해를 막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일본 경기는 완만히 확대중”(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15일 지정장 회의에서 일본 경제에 대해 평가하며 장단기 금리조작을 통한 양적, 질적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히)

데이터 경제

교보문고 집계, 2017년 취업·수험서 100만권 돌파		
교보문고에 따르면 구작년을 반영하듯 2017년 취업·수험서가 처음으로 100만권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공무원수험서는 전년 대비 7.3% 늘었고, 일반취업서는 전년 대비 24.7% 상승했다. 교보문고는 “공공부문에서 불라민드 채용을 의무화 한데 이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공사나 민간기업으로 진로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취업서 종류별로 보면 직무적성검사가 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일반취업서의 성·연령별 구매비중은 20대 여성이 39.9%로 가장 높고 이어 20대 남성이 28.3%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20대가 68.2%, 30대가 19.8%였다.		
취업·수험서 판매 증가율	7.3% 공무원 수험서	24.7% 일반 수험서
일반취업서 분야별 증가율	34.7% 직무적성검사	15.0% 자기소개서 이력서
일반취업서 성·연령별 구매비중 TOP2	39.9% 20대 여성	28.3% 20대 남성
자료제공 교보문고		

편집 | 이수진 기자



김남주가 ‘젠틀 우먼’ 변신

김남주가 ‘젠틀 우먼’으로 변신.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현대 여성의 액세서리룩을 선보였다. 모 델로 활약 중인 LF 닥스액세서리 2018 봄 시즌 화보에서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포즈로 신제품 ‘트윙클미’ 라인을 멋지게 소화하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급스럽고도 세련된 감성을 표현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LF